



본란의 기사는 本會의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로는 本會 國際部(TEL : 553 - 0941/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EC, 일본의 투자정책에 경고

EC의 대외관계 집행위원은 일본이 외국업체들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면서도 자국내에서는 구미업체들이 합작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투자정책을 지속할 수 없음을 경고.

국내산업을 보호하여 양질의 수출품을 개발토록 하고 있는 일본의 통상 및 투자정책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일부 비평가들은 일본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계 무역 제도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음.

한편 일본은 외국 투자자들의 어려움은 공식적인 정책 때문이 아니고 높은 부동산과 주식시세 그리고 일본 기업계에서의 병합 인수의 전통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

### 2. EC,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GATT에 청원

EC는 최근 국내 생산업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수입에 대해 각국 정부가 선별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안을 제출.

정부로서 첫단계는 수출국들과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고 10일 이내 회기가 개최되어야 하며 협의에 실패하면 수입국은 당해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잠정적으로 규제하도록 허용됨.

규제는 피해조사 완료 시점까지 그러나 8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계속될 수 있음.

### 3. EC, 원산지 규정관련 GATT의 역할증대에 동의

일본, 미국과 홍콩의 압력을 받고 있는 EC는 원산지 규정을 지배하는 일반원칙들이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하는데 동의. 특히 일본은 EC가 일본산 전자제품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함에 있어 원산지 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다뤄지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음.

GATT는 현재 원산지 규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각국 정부에 달려 있어 복잡한 행이 결과되었고 무역업체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무역 당사국들은 GATT의 틀 내에서 원산지 규정의 기본 원칙들을 존중해야 하며 이런 원칙들은 비차별적이며, 중립적이고 명료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EC는 주장.

규정의 해석에 대해 수입국의 사법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규정들은 반덤핑 조치던 공공강매던 통제던 모든 교역 목적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상충이 있으면 GATT의 분쟁 해결 메카니즘에 회부되어야 함.

그러나 EC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관세협력위원회(CCC) 교도 협약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부록을 전적으로 채택하고 규정들을 조화시키거나 기술적으로 보완시키는 문제에 관해 CC에서 토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동 협약은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최종 실질적인 공정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EC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음.

EC의 제안은 오직 정상적인 교역에만 적용되고 아직까지 상이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특별교역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음.

#### 4. EC, 한국산 CTV 수입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연장

89. 10 한국산 소형 CTV 수입에 부과된 반덤핑 잠정관세가 90. 2부터 2개월동안 연장되었음. 집행위는 아직까지 사실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음.

#### 5. 한국, EC 결정에 대한 제소 가능성

한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산 CTV의 직수입을 억제하고 있는 프랑스가 6. 30까지 간접 수입을 봉쇄할 수 있도록 한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제소할지 모른다고 유럽 신문에 보도됨.

#### 6. 집행위, 프랑스의 한국산 CTV 수입에 Community Treatment 거부허용

집행위는 프랑스가 한국과 일본산으로 기타 회원국에 자유통제되고 있는 CTV(CN Code 8 528 1040, 1050, 1061, 1069, 1071, 1073, 1079, 1091, 1098)의 수입품에 대해 지역 제품으로 취급 (Community Treatment) 거부를 허용키로 결정.

대만산 CTV의 수입에 대한 프랑스의 간접 규제 계속 허용 요청은 거부됨.

#### 7. '92년 EC 통합과 IC산업

지난해 봄 EC는 Local Content 규정에 대해 재해석을 내리게 되었는데, 기존의 규명에 의하

면 EC역내에서 조립과 시험측정(test)이 수행 되어질때 EC 원산으로 간주 되었었다. 그러나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중요한 도핑(doping) 단계가 EC역내에서 수행 되어질때에 한해서 로칼 콘텐츠 수준이 적용되어질 것이다.

EC 관세정책들은 로칼콘텐츠를 맞추고 있는 상품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이기에 이 새로운 해석은 이미 유럽내에 공장을 설립하는데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많은 역외 기업들이 역내에 새로운 공장설립 계획을 발표하였거나 또는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반도체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와이퍼 생산용량의 비율은 미국과 유럽이 거의 동일한 반면 유럽의 제품 분포는 미국과 몇몇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유럽은 Discretes에서 미국보다 우위에 있으며 반면 미국은 ASIC과 MPU에 있어서 유럽을 단연 앞서고 있다. 의외로 유럽은 메모리 분야에 있어 미국을 약간 상회하는데 이는 Siemens가 유럽에서 DRAM을 생산하고 있으며 IBM, Motorola 그리고 NEC

표. 비EC기업의 현지공장 설립현황

업 체 명	가 동 시 기	소 재 지
1. Analog Devices	1991	Limerick, 에이레
2. Intel	1993	Leixlip, 에이레
3. Digital Equipment	1990	Queensferry, 영국
4. Fujitsu	1990	Newton Aycliffe, 영국
5. Fujitsu	1992	Newton Aycliffe, 영국
6. Fujitsu	1994	Newton Aycliffe, 영국
7. Motorola	1991	East Kilbride, 영국
8. Hitachi	1992	Landshut, 서독
9. IBM	1991	Sindelfingen, 서독
10. ITT	1991	Freiburg, 서독
11. Mitsubishi	1993	Aachen, 서독
12. Samsung	1991	Wasserburg, 서독
13. Toshiba	1991	Braunschweig, 서독
14. Texas Instruments	1990	Avezzano, 이탈리아
15. Texas Instruments	1995	Avezzano, 이탈리아

자료 : 데이터 캐스트

등이 역시 유럽에 DRAM 생산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DRAM 생산용량은 Submicron 설비에 있어서 미국보다 2 배가 되며, 더우기 Submicrometer DRAM에 있어서는 Table 1에 있는 업체들 중 적어도 6 개 정도가 0.8~0.6 mm 폭의 용량을 갖추어 DRAM 생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에서 로칼 콘텐츠 같은 정부정책이 역내로 공장을 유치하는데 결코 효과적이지는 않았었으며, 오히려 유럽 반도체 생산을 감소시켜 타지역 생산을 고무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이러한 상황은 이미 세계 주요지역에 공장건설 계획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에게

는 부담이 없으나 대기업 같은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해외 로칼 콘텐츠 환경 아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해외 공장에서 제품이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유럽내 다수의 첨단공장들의 계획적 증가는 반도체 생산에 Globalization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이번 로칼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EC역외에 기반을 둔 기업들에게 역내 설비의 이용을 부추기게 되어 반도체 산업에 많은 합병이나 합작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은 기타 지역에서도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이러한 EC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받아들인다면 세계적으로 반도체 생산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